

Salvage Treatment in Relapsed Cases after Cisplatin-based Chemotherapy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조 용 현

전이성 방광이행상피세포암(방광암)의 경우는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다. 가장 효과적인 항암화학약제는 cisplatin 및 methotrexate이며 이들 약제를 기본으로 한 대표적인 병용요법에는 MVAC (methotrexate, vinblastine, doxorubicine, cisplatin), CISCA (cisplatin, cyclophosphamide, doxorubicin), CMV (cisplatin, methotrexate, vinblastine), CM (cisplatin, methotrexate) 등이 있다.

MVAC은 반응을 39-72%로 현재 전이성방광암에 가장 효과적인 병용요법으로 인정받고는 있으나, 이중 완전반응(CR)율은 13-35%에 불과하고 대부분 부분반응(PR)을 나타내며, 완전반응의 예에서도 CR 후 1년 이내에 재발하게 된다. 이 경우 salvage chemotherapy를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하여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의 생존기간은 매우 짧으며 평균생존기간은 9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Salvage chemotherapy에 사용되는 약제로는 새로운 약제(new agent)에 속하는 gallium nitrate, ifosfamide, taxane derivative (paclitaxel, docetaxel), new antifols (trimetrexate, piritrexim), gemcitabine 등이 있으며 이들 약제의 단독 투여(단독 요법)시 평균반응률(CR+PR)은 17-50%, 평균반응기간 4-6개월 정도이다. Salvage chemotherapy시 단독요법의 치료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최근 상기약제들을 주축으로한 약제의 병용투여(병용요법)가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병용요법으로는 gallium nitrate+5-FU, vinblastine+ifosfamide+gallium nitrate, pacli-

taxel+ifosfamide, paclitaxel+methotrexate+cisplatin, 5-FU+interferon α , 5-FU+interferon+cisplatin 등이 있으며 이들 요법의 시행시 평균반응률(CR+PR) 및 반응기간은 단독 요법에 비해 약간 우수하다고는 할 수는 있으나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외 salvage chemotherapy로 기존 MVAC 항암화학약제를 사용한 경우에서도 vinblastine 단독요법시 반응률(PR) 18%, escalated MVAC시 반응률(CR+PR) 40%, good prognosis factor를 가진 선택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second line MVAC시 반응률(CR+PR) 75%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high dose chemotherapy with PBSCT는 현재까지 수례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결과는 부정적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시도된 여러 가지 salvage chemotherapy의 치료 성적은 chemotherapy naive patient의 chemotherapy에 비해 다양하고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investigative study인 경우도 많다. 현재 cisplatin-based chemotherapy 후 불응 및 재발된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standard salvage chemotherapy는 없으며, 이 시점에서 1990년대에 들어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salvage chemotherapy에 대해 전반적인 연구검토 후 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해당 환자들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조 용 언

1. 1977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 1989년 - 90년 미국 유타대학병원 연수
3. 1997년 - 현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교수